산업통상자원부	**보도참고자료**	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			
배포일시	2018.6.29.(금)	담당부서	미주통상과
담당과장	김장희 과장(044-203-5650)	담 당 자	이은희 서기관(044-203-5624)

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, 정부의견서 제출

-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성 강조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백운규 장관)는 미국 **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 안보영향 조사**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**6. 29.(금)**(현지시간) **제출**하기로 했다.

□ 미국 상무부는 5. 23.(현지시간)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**수입자동차**(다목적스포츠차량(SUV), 밴, 경트럭 포함)와 **부품**에 대해 **국가안보 영향 조사**를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,

○ 조사절차에 따라 6. 29.까지 서면의견서 접수 및 공청회 참석 신청, 7. 19. ~ 20. 공청회 개최 등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.

□ 이에 따라, 정부는 **민관 특별팀(TF) 회의**(자동차협회, 자동차부품조합, 업계 등), **관계부처 회의**, **통상전문가 회의**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.

* 민관 TF(5.24 산업혁신성장실장, 6.22 차관보 주재 등), 전문가(5.31 통상차관보, 6.20 통상정책국장), 관계부처(6.12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, 6.15 대외경제장관회의 등)

□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**한미 동맹**의 중요성, **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을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**를 집중 강조하는 한편, 자동차 산업에 **국가안보를 이유로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**를 표명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❶ 한국은 미국의 **핵심동맹국**으로서 **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**임

○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을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**상호 호혜적으로 철폐**되었고, 3.28일 원칙적 합의를 이룬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 등 **미국산 자동차의 대(對) 한국 수출 여건이 개선됨**

○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중소형 자동차로서, 중대형차 및 스포츠다목적차량(SUV) 위주인 **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**

○ 한국 자동차 산업은 **미국에 100억불 이상 투자**하여 약 **3만 명의 직접고용**을 창출하는 등 **미국 경제에 이바지**하고 있음

❷ **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건재**하며, **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**

○ 미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능력 가동률, 생산, 수출, 고용 등 **주요 지표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**로 **미국 자동차 산업은 건재**

○ **상업용 차량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으며**, 국가안보 예외를 확대 해석할 경우 **예외의 남용을 유발**하여 오히려 미국 국가 이익을 저해

❸ **자동차 분야 232조 조치는 美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**

○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감안할 때, 관세 부과 등의 조치는 **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**시킬 수 있음

○ 또한 **미국내 일자리 감소**,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인한 **소비자 부담 증가**로 **미국 경제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**을 초래할 수 있음

□ 정부는 7.19(목)~20(금) 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에 **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**하여 자동차 232조에 관한 우리 의견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.

※ 정부의견서 원문은 미국 상무부에서 공개하는 대로 배포할 예정임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이은희 서기관(☎044-203-56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